

12월 27일(월)/고전 9:1~27 (2)

제목: 사람 가리는 사람은 실패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무상으로 전하며 얻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기 때문이며 심지어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16절). 이어서 바울의 자기의 독특한 선교의 방법에 관해서 나누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다(19절). 바울은 전도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까지 내려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 잡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도 되어보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되어보았다(20~22절). 이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는 거지하고도 친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를 위해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과도 잘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선교를 위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귀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선교를 위해서는 까다롭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게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은 전도하기 쉽지 않다.

12월 28일(화)/고전 9:1~27 (3)

제목: 인생은 전쟁이다.

바울은 인생을 육상 경주에 비유하였다(24절). 경주라기보다 전쟁이라 해야 더 적절할 것 같다. 인생은 전쟁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자기 절제’ 이다(25절). 권투 선수는 상대가 없는 링에서 주먹을 휘두를 필요 없다(26절). 권투 시합에는 라이벌(rival) 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생 전쟁에서의 라이벌은 ‘자기 자신’ 이다. 바울도 이 라이벌과 매일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자기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날마다 쳐댔다(27절). 전쟁 중에는 약한 군인이나 연습을 게을리 하는 군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크리스찬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전쟁하는 인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쟁 상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다. 가동할 파괴력을 가진 공중의 권세 가진 자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종한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능한 즐기고 취하라” 라고 한다. “이것이 남는 장사다” 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전쟁을 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격고 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세상에 있는 전쟁 중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전쟁이다.

12월 29일(수)/고전 10:1~13

제목: 유혹과 피할 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시대에 구름의 인도를 받았으며, 바다 밑으로 걸어 다녔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다(1~4절).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층이었다.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철저히 타락했다.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7~10절). 이런 일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권층인 사람들도, 즉 자기가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12절). 특권층이라고 방심하는 사이에 넘어 질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바울의 요지는 유혹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유혹은 인생에서 본질이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또 하나의 본질을 소개한다. 그것은 ‘피할 길’ 이다(13절). 유혹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빠져 나갈 길’ 을 마련해 놓으신다. ‘빠져 나갈 길’ 이란 험악한 산길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의미한다. 적에게 포위된 군대가 빠져 나갈 길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를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혹과 함께 빠져 나갈 길이 그 옆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혹을 참은 자, 이긴 자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이 있다.

12월 30일(목)/고전 10:14~22

제목: 조상 제사

바울은 성만찬에서 받은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며 또한 받은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6절) 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18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씹어서 목구멍에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음식과 관련된 사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20절). 그런 의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안 먹어야 한다(21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단의 목적에 봉사한 고기에는 그 사단의 사상이 남아있다. 따라서 그것은 더러운 물건인 썸이다.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우상은 무(無)이며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안된다. 그것은 사단이 시키는 일이다. 우상 숭배는 사단과의 교제가 된다(20절). 조상 제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조상님 사진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은 안된다. 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행위이다. 그것은 곧 사단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12월 31일(금)/고전 10:23~33

제목: 사람이 하나님이다.

신자는 불신자가 초대하는 잔치에 갈 수 있으며, 거기서 주인이 내놓은 고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27절).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26절). 반면에 주인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고 말하면 먹어서는 안된다(28절). 주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신자는 이런 류의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나만 옳으면 된다' 식의 사고방식을 해서는 안된다. 크리스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31~33절).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것으로 규정한다. 말하자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웃에게 베푼 작은 선행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웃에게 행한 작은 악행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셨다(마25:35~40).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이웃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